

『脈經』·『脈訣』·『脈訣刊誤』의 비교를 통한 『脈訣』의 脈象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校室¹

鄭致旭¹ · 尹暢烈^{1*}

Study on the definitions of pulses of 『Maekgyeol(脈訣)』 by comparison of 『Maekgyung(脈經)』 and 『Maekgyeol(脈訣)』 and 『Maekgyeolganoh(脈訣刊誤)』.

ChungChiwook¹ · YoonChangyeol^{1*}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Maekgyung(脈經)』 was the first book for diagnostic metho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istory, but it couldn't be spreaded widely. After that, 『Maekgyeol(脈訣)』 was widely spreaded for centuries, because it was more concise and easier to memorize than 『Maekgyung』. But as time went by, people got to know that 『Maekgyeol』 had many errors. After 『Maekgyeolganoh(脈訣刊誤)』 corrected the errors of 『Maekgyeol』, 『Maekgyeol』 came to lose its reputation and people began to study 『Binhomaekhak(瀕湖脈學)』 instead of 『Maekgyeol』. We got to wonder why 『Maekgyeol』 was criticized by many people, so we decided to compare the definitions of pulses(脈象) in 『Maekgyung』 and 『Maekgyeol』 and 『Maekgyeolganoh』. Both 『Maekgyung』 and 『Maekgyeol』 have 24 kinds of pulses, but 22 kinds are in common. In 22 kinds of pulses, only 2 kinds of definitions are similar and the others are different. And 『Maekgyeolganoh』 criticized errors of 『Maekgyeol』 and corrected the definitions by that of 『Maekgyung』. In conclusion, we come to know that 『Maekgyeol』 was rejected by people because it defined most of pulses different from 『Maekgyung』.

Key words : 『Maekgyung(脈經)』, 『Maekgyeol(脈訣)』, 『Maekgyeolganoh(脈訣刊誤)』, definitions of pulses(脈象)

I. 序論

王淑和의 이름은 熙이고 高平人으로 太醫令을 지냈다. 王淑和의 의학상 공헌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張機의 『傷寒雜病論』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한 것이고 둘째는 『脈經』의 저술이다. 『脈經』은

* 교신저자 : 尹暢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yooncy@dju.ac.kr Tel: 042-280-2601

접수일(2010년 9월2일), 수정일(2010년 9월17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18일)

중국 현존의 가장 오래된 論脈全書로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였다. 이른바 24맥은 浮, 芤,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 등의 24종의 맥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內經』 이래 各書의 기재에 散見된다. 그러나 이들을 모아서 그 脈象에 대하여 완벽한 서술을 하고 아울러 그들이 性狀에 대하여도 하나씩 비교적 명확한 묘사를 한 것은 본서가 제일 먼저이다¹⁾.

1) 홍원식, 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p.200~201.

하지만 脈學 발전의 영향으로 볼 때 『脈經』은 당시에 王叔和를 탁명하여 유행한 『脈訣』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王叔和脈訣』은 六朝시기에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敦煌卷子에 수록된 『脈訣』의 내용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 책은 歌訣 형식으로 脈學의 내용을 통속화하고 “七表八裏九道”로 24종의 脈象을 귀류시켰다. 『脈經』과 비교하면 『脈訣』은 간략하고 쉽게 되어 있으며, 또한 晉·太醫令 王叔和를 탁명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널리 유전되었다. 宋金元시기에 이르러 『脈訣』의 영향이 날로 커졌다. 北宋 初의 『太平聖惠方』, 治平시기(1064~1067) 蕭世基의 『脈粹』 등 수많은 의서에 모두 『脈訣』의 七表八裏脈象歸類法을 수용하였다. 『脈訣』이 유행한 당시에는 많은 주석본이 출현하여 끝내는 『脈訣』이 세상에 나타나자 『脈經』은 사라지는 국면이 초래되었다. 南宋 陳無擇에 이르러 처음으로 『脈訣』은 六朝시기 高陽生의 위작이라고 지적한 이후 『脈訣』의 지위는 점차 낮아졌다. 元代에 戴同父가 『脈訣』을 직접 공격한 『脈訣刊誤』를 출판한 이후부터 『脈訣』의 명성은 날로 쇠퇴하게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끝내 李時珍의 『瀕湖脈學』에 의해 대체되었다²⁾.

일찍이 王世相은 『脈訣』을 비판하여 “五代時에 高陽生이 『脈訣』을 저술하여 王叔和의 이름을 빌려 『王叔和脈訣』이라 하였으나, 여러 곳에 말들이 맞지 아니하고, 言辭가 鄙陋하며, 또한 이를 속되게 배우고 망녕되게 註解하여 世醫 家家戶戶 傳誦하여 茫然히 診脈하지 않는 마가 없으니, 이는 『脈訣』을 빌어서 밥을 구하는데 불과할 뿐 진찰에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³⁾라 하여 『脈訣』이 王叔和를 표절하였을 뿐 아니라 문체가 비속함을 비판하였다. 또한 李時珍은 “宋나라 때에 속된 사람이 『脈訣』을 杜撰하였는데, 그 내용이 천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곳이 많아서,

이 책으로 의학을 배우고 외우기 시작한다면 頽白의 나이가 되어도 脈의 이치를 필경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戴啓宗 선생이 오래전에 그 잘못된 곳을 깎아내고 바로 잡아 『脈訣刊誤』를 저술하였다.”⁴⁾라고 하여 『脈訣』의 내용에도 잘못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저자는 『脈訣』에서 정의한 脈象은 『脈經』에서 정의한 脈象과 어떻게 다르며, 脈象을 『脈經』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후세의 『脈訣刊誤』에서는 어떻게 교정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脈經』과 다른 『脈訣』의 脈象에 대한 비판은 『脈訣刊誤』와 『瀕湖脈學』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脈經』의 원문은 華夏出版社에서 발행한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⁵⁾에서 인용하였으며, 『脈訣』과 『脈訣刊誤』의 원문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발행한 『汪石山醫學全書』⁶⁾에서 인용하였다. 『脈經』의 원문에서 작은 글자로 되어있는 구절은 괄호 안에 넣어서 구분하였다. 脈象의 순서는 『脈經』에 나열된 순서를 따랐고, 『脈經』에는 없고 『脈訣』에만 있는 脈象은 마지막에 나열하였다.

II. 本論

1. 浮

| 書名 | 脈象 |
|------|------------------------------------|
| 脈經 | 浮脈, 舉之有餘, 按之不足. (浮於手下.) |
| 脈訣 | 浮者, 陽也. 指下尋之不足, 舉之有餘, 再再尋之如太過, 曰浮. |
| 脈訣刊誤 | 浮者, 陽也. 指下按之不足, 舉之有餘, 脈在肉上行, 曰浮. |

2)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역. 중국 과학기술사. 서울. 일중사. 2003. pp.590~591.
3) 李時珍 著. 朴兌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의 학사. 1992. p.209. “五代之 高陽生이 著脈訣하여 假叔和之名하나 語多抵牾하고 辭語鄙俚하며 又被俗學妄註하여 世醫가 家傳戶誦하여 茫然無所下手하니 不過藉此로 求食而已요 於診視에 何益哉리요.”

4) 李時珍 著. 朴兌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의 학사. 1992. p.5. “李時珍曰 宋有俗子하여 杜撰脈訣하니 鄙陋糺繆하여 醫學習誦을 以爲權輿하면 逮臻頽白이라도 脈理竟味할새 戴同父가 常刊其誤라.”
5)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506.
6)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9~31.

『脈經』에서의 浮脈은 “舉之有餘，按之不足。”이라 하여 손가락을 들면 남고 누르면 모자란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는 맥관을 가볍게 눌렀을 때에는 맥이 느껴지고 세게 눌렀을 때에는 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脈訣』에서는 『脈經』의 “按之不足”이라는 구절을 “尋之不足”이라 바꾸어 말하였는데, ‘按’은 맥관을 沈部位까지 깊이 눌러본다는 의미이고⁷⁾, ‘尋’은 浮沈의 사이에서 맥관을 여러 방향으로 밀어서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이므로⁸⁾, ‘按’과 ‘尋’을 바꾸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尋’과 ‘按’은 같지 않으니, ‘按’은 肌肉筋骨의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것이고, ‘尋’은 혹 위로, 혹 아래로, 혹 왼쪽으로, 혹 오른쪽으로 밀어서 脈이 나타나는 곳을 따라 찾는 것이다. 浮脈은 누르면 부족하나, 찾아서 부족한 것은 아니다.”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尋之不足”이라는 구절은 浮脈에 대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脈經』의 浮脈은 맥의 위치만으로 정의되는 脈象인데, 만약 『脈訣』에서 “如太過”라고 하면 有力한 맥상만 浮脈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지나치다고 말하면 곧 浮洪, 浮緊, 浮弦의 脈은 어떻게 살필 것인가. 『脈經』에는 “지나치다”라는 구절이 없다.”¹⁰⁾라고 하였고, 李時珍은 “이것은 浮脈에 洪, 緊脈을 겸한 것이므로 浮脈이 아니다.”¹¹⁾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按之不足，舉之有餘，脈在肉上行，曰浮.”라 하여 『脈經』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또한 浮脈의 위치를 ‘肉上’이라 하여 皮膚와 血脈의 깊이에 있다고 하였다.

2. 扞

| 書名 | 脈象 |
|------|--------------------------------|
| 脈經 | 扞脈，浮大而軟，按之中央空，兩邊實。(一曰手下無，兩旁有.) |
| 脈訣 | 扞者，陽也。指下尋之，兩頭即有，中間全無，曰扞。 |
| 脈訣刊誤 | 扞者，陽也。舉之，浮大而軟，按之，兩邊實，中間虛，曰扞。 |

『脈經』에서의 扞脈은 “浮大而軟”이라 하여 맥을 가볍게 눌렀을 때 느껴지고 맥관은 크며 느끼는 부드럽고, “按之中央空，兩邊實.”이라 하여 맥관의 경계는 비교적 유지되지만 내부는 공허한 모습을 가진 맥이다.

『脈訣』에서는 “指下尋之，兩頭即有，中間全無.”라 하였는데, 兩頭나 頭尾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寸尺을 가리키므로, 이 구절은 맥박이 寸과 尺에서는 느껴지고 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脈經』의 扞脈과는 전혀 다른 맥상이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무릇 尺脈이 위로 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陰絶이고 寸口가 아래로 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陽絶이니, 만약 양 머리는 있으니 가운데가 비어있다면 陰陽이 끊어진 脈이다. 어찌 扞脈이라 할 수 있겠는가.”¹²⁾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扞脈의 脈象을 “舉之，浮大而軟，按之，兩邊實，中間虛，曰扞.”이라 하여 『脈經』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3. 洪

| 書名 | 脈象 |
|------|-------------------------|
| 脈經 | 洪脈，極大在指下。(一曰浮而大.) |
| 脈訣 | 洪者，陽也。指下尋之極大，舉之有餘，曰洪。 |
| 脈訣刊誤 | 洪者，陽也。極大在指下，來大去長而滿指，曰洪。 |

12)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夫尺脈上不至關爲陰絶이오 寸口下不至關爲陽絶이니 若兩頭似有中間全無則是陰陽絶脈也니라 安得爲扞脈乎아.”

7)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206. “손가락에 힘을 주어 沈分의 脈象을 구하는 것.”

8)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195. “診脈時 손가락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하여 左右로 脈象을 살피는 것.”

9)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又尋與按不同하니 按者는 重手於肌肉筋骨部也니라 尋則或上或下或左或右하야 隨脈部以尋之니라 浮脈按之不足하나 非尋之不足也니라.”

10)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9~20. “曰太過라하면 則浮洪 浮緊 浮弦之脈은 如何診之잇고 脈經并無如太過之文이니라.”

11) 李時珍 著. 朴晳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學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12. “脈訣言 尋之如太過라하나 乃浮兼洪緊之象이오 非浮脈也라.”

『脈經』에서는 단순히 “洪脈，極大在指下.”라 하고 또한 “浮而大.”라고 하였으니, 비록 洪脈의 형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는 하지만,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도 느껴지며 손가락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맥관이 넓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脈訣』에서는 “指下尋之極大，舉之有餘，曰洪.”이라 하여 맥관이 넓어져 있으면서 가볍게 눌러도 힘이 있는 맥을 가리킨다. 『脈訣刊誤』에서도 “極大在指下，來大去長而滿指，曰洪.”이라 하여 맥이 올 때는 커다랗고 갈 때는 길고 손가락을 가득 채운다고 묘사하여 맥관이 매우 넓어져 있으며 길고 충실하게 손가락을 채운다고 보았다.

脈象에서 ‘來’는 맥관으로 혈류가 유입되어 맥관이 확장하는 때를 가리키며, ‘去’는 맥관에서 혈류가 유출되어 맥관이 수축하는 때를 가리키므로, 『脈訣刊誤』에서의 洪脈은 맥관이 확장할 때와 수축할 때 모두 충실한 脈象이다.

洪脈의 정의는 『脈經』과 『脈訣』과 『脈訣刊誤』가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脈經』에서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맥상이 『脈訣』과 『脈訣刊誤』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瀕湖脈學』에서는 洪脈의 맥상을 “來盛去衰”하고 “來大去長”이라고 하였으니¹³⁾, 맥관이 확장할 때에는 충실하지만 수축할 때에는 공허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脈訣刊誤』에서 맥관이 확장할 때와 수축할 때에 모두 충실한 맥을 洪脈이라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4. 滑

| 書名 | 脈象 |
|------|--|
| 脈經 | 滑脈，往來前却流利，展轉替替然，與數相似。(一曰浮中如有力。一曰澹澹如欲脫。) |
| 脈訣 | 滑者，陽也。指下尋之，三關如珠動，按之即伏，不進不退，曰滑。 |
| 脈訣刊誤 | 滑者，陽也。往來前却流利，展轉替替然，與數珠相似，應指圓滑。又曰，澹澹如欲脫，曰滑。 |

13) 李時珍 著. 朴晳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學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33.

『脈經』에서는 “滑脈，往來前却流利，展轉替替然，與數相似.”이라 하여 滑脈은 맥의 흐름이 원활하고 매끄럽고 동글동글한 맥상이라고 하였다. 數脈과 비슷하다는 말은 박동수가 많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맥의 흐름이 빠르고 경쾌하여 數脈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보인다.

반면 『脈訣』에서는 滑脈의 형상을 “指下尋之，三關如珠動，按之即伏，不進不退，曰滑.”이라 하였다. “三關如珠動”은 寸關尺 三部 세 부위에 모두 구슬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이며, “按之即伏”은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서 浮部位에서는 滑脈을 느낄 수 있으나, 沈部位까지 무겁게 누르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不進不退”는 往來가 없이 머물러 있는 맥이라는 의미이다. 『脈經』에서는 滑脈을 가리켜 왕래가 원활하고 매끄럽다고 하였으나, 『脈訣』에서는 왕래가 없이 머물러있다고 하였으니 서로 반대가 된다.

『脈訣刊誤』에서는 이를 비판하여 “지금 『脈訣』에는 “누르면 곧 伏하여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곧 이는 浮滑만 있고 沈滑은 없는 것이다. 經에 一陰一陽은 脈이 沈하게 오면서 滑한 것을 말하니, 이는 沈한 가운데에 또한 滑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王裳은 “『脈訣』은 表만 논하고 裏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또 脈은 홀로 한 부위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고 三部에 모두 보이는 것이 있다. 지금 “三關이 구슬이 동하는 듯하다.”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누르면 곧 伏하여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곧 脈이 往來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인데 어찌 滑이라고 말할 바가 있겠는가.”¹⁴⁾라 하였다.

따라서 『脈訣刊誤』에서는 滑脈의 脈象을 정의하며 『脈經』을 인용하여 “往來前却流利，展轉替替然，與數珠相似，應指圓滑。又曰，澹澹如欲脫，曰滑.”이라 하였는데, 『脈經』의 “與數相似”이라는 구절은 맥박수가 많다는 의미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14)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今脈訣曰 按之即伏하여 不進不退라하면 則是有浮滑而無沈滑也니라 經曰 一陰一陽者는 謂脈來沈而滑也니 是沈中亦有滑也니라 故로 王裳言 脈訣論表不及裏也니라 且脈有獨見於一部者이오 有通三部見者니라 今曰 三關如珠動은 非也니라 按之即伏하여 不進不退라하면 則是脈不往來而定일진대 豈所謂滑乎아.”

“與數珠相似”이라 고치고, “應指圓滑”과 “澗澗如欲脫”이라는 구절을 덧붙여 滑脈이 매끄럽고 원활한 느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5. 數

| 書名 | 脈象 |
|------|---------------------------------|
| 脈經 | 數脈, 去來促急. (一曰 一息六七至. 一曰 數者進之名.) |
| 脈訣 | 없음. |
| 脈訣刊誤 | 數者, 陽也. 一息六至. 又曰, 去來促急爲數. |

『脈經』에서의 數脈은 “去來促急”이라 하여 促急한 느낌을 주는 맥이며, 또한 “一息六七至”라 하여 한 번 숨 쉬는 동안에 6~7회 정도로 맥박이 빠르게 뛰는 맥이다.

『脈訣』에는 數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李時珍은 이를 비판하여 “浮沈遲數은 맥의 강령으로 『素問』, 『脈經』에서 모두 正脈으로 삼았으나, 『脈訣』에서는 七表八裏脈을 설정하면서 數脈을 빼고 心臟歌에만 언급하였으니 망발이 매우 심하다.”¹⁵⁾라고 하였다. 따라서 『脈訣刊誤』에서는 數脈의 맥상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는데, 『脈經』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一息六至”를 앞에 말하고 또한 “去來促急爲數.”이라 하여 『脈經』과는 달리 맥박수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6. 促

| 書名 | 脈象 |
|------|---|
| 脈經 | 促脈, 來去數, 時一止復來. |
| 脈訣 | 促者, 陽也. 指下尋之極數, 并居寸口, 曰促. |
| 脈訣刊誤 | 促者, 陽也. 指下尋之極數, 并居寸口. 又曰, 來去數, 時一止復來, 曰促. |

『脈經』에서는 促脈을 정의하여 “促脈, 來去數, 時一止復來.”이라 하였고, 結脈을 정의하여 “結脈, 往來緩,

時一止復來.”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脈經』의 數脈은 來去促急하며 맥박수가 많은 맥이므로, 促脈은 맥이 促急하고 맥박수가 많으면서 도중에 한 번씩 멈추는 맥을 가리킨다. 『脈經』의 緩脈은 완만하면서 遲脈보다는 맥박수가 약간 많은 맥이므로, 結脈은 맥이 완만하고 맥박수는 약간 적게 오면서 도중에 한 번씩 멈추는 맥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반면 『脈訣』에서는 促脈을 가리켜 “指下尋之極數, 并居寸口, 曰促.”이라 하여 맥박수가 많다고는 하였으나, 맥박이 도중에 멈춘다는 말이 없다. 李時珍은 이를 비판하여 “『脈訣』에 ‘寸口に 있다.’고 하였고, ‘때로 정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數한 가운데 정지하는 것이 促脈이고, 緩한 가운데 정지하는 것이 結脈이니, 어찌 홀로 寸口에만 있게 되겠는가?”¹⁶⁾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尋之極數, 并居寸口, 又曰. 來去數, 時一止復來, 曰促.”이라 하여 『脈訣』과 『脈經』의 구절을 모두 인용하였고 독창적인 견해는 없다.

7. 弦

| 書名 | 脈象 |
|------|---|
| 脈經 | 弦脈, 舉之無有, 按之如弓弦狀. (一曰 如張弓弦, 按之不移. 又曰 浮緊爲弦.) |
| 脈訣 | 弦者, 陽也. 指下尋之不足, 舉之有餘, 狀若箏弦, 時時帶數, 曰弦. |
| 脈訣刊誤 | 弦者, 陽也. 端直以長, 如弦隱指, 曰弦. |

『脈經』에서는 弦脈을 가리켜 “舉之無有, 按之如弓弦狀.”이라 하여 浮部位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손가락을 누르면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不足, 舉之有餘, 狀若箏弦, 時時帶數, 曰弦.”이라 하여 마치 활시위처럼 느껴진다는 점은 『脈經』과 같지만, 浮部位에서 느껴지며

15) 李時珍 著. 朴晷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19. “浮沈遲數은 脈之綱領으로 素問脈經에 皆爲正脈이나 脈訣에 立七表八裏 而遺數脈하고 止謂于 心臟하니 其妄甚矣라.”

16) 李時珍 著. 朴晷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59. “脈訣乃云 并居寸口라하고 不言時止者는 謬矣라 數止는 爲促이오 緩止는 爲結이니 何獨寸口哉리오.”

때때로 數脈을 띠는 점은 『脈經』과 다르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脈訣』에서 “손가락 아래에서 찾으면 부족하나 들어보면 남는다.”라고 하면 곧 浮弦만 있고 沈弦은 없는 것이다. 經에서 “脈이 沈하며 弦한 것은 懸飲內痛을 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沈한 가운데에 또한 弦이 있음이다. 또 “때때로 數을 띠다.”라고 하면 곧 弦數 두 脈이 相兼한 것이고 弦脈 하나만은 아니다.”¹⁷⁾라고 하였다. 따라서 弦脈은 비록 『脈經』에서는 沈部位에서 느껴지는 맥이라 보았지만, 실제로는 浮沈과 관계 없이 어떤 깊이에서도 느껴지는 맥으로 보아야 하겠다. 『脈訣刊誤』에서는 “端直以長, 如弦隱指, 曰弦.”이라 하여 浮沈과는 무관하게 곧고 길어서 마치 활시위처럼 손가락에 느껴지는 맥을 弦脈이라고 정의하였다.

8. 緊

| 書名 | 脈象 |
|------|---|
| 脈經 | 緊脈, 數如切繩狀. (一曰 如轉索之無常.) |
| 脈訣 | 緊者, 陽也. 指下尋之, 三關通度, 按之有餘, 舉指甚數, 狀如洪弦, 曰緊. |
| 脈訣刊誤 | 緊者, 陽也. 來往有力, 左右彈人手, 既如轉索, 又如切繩, 曰緊. |

『脈經』에서는 緊脈을 가리켜 “數如切繩狀”이라 하여 마치 새끼줄을 자른 것과 같아 보이는 경우가 잦은 脈象을 가리킨다. 또한 “如轉索之無常.”이라 하여 새끼줄을 돌리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불규칙하게 여러 방향에서 손가락을 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 三關通度, 按之有餘, 舉指甚數, 狀如洪弦, 曰緊.”이라 하여 寸關尺에서 모두 느껴지며 누르면 힘이 있고 맥박수가 많으며 洪脈·弦脈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寸關尺에서 모두 보여야만 緊脈이라 말할 수도 없으며, 緊脈에 반드시 數脈을 겸한다고도 볼 수 없고, 洪脈과 緊脈은 전혀 별개의 脈象이어서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17)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 “脈訣曰 指下尋之不足하나 舉之有餘라하면 則是有浮弦而無沈弦也니라 經曰 脈沈而弦者는 主懸飲內痛이라하니 是沈中亦有弦이니라 又曰 時時帶數라하면 則是弦數二脈相兼이오 非單弦脈也니라.”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지금 『脈訣』에 “洪脈 弦脈과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緊은 寒이 되고 痛이 되고, 弦은 寒이 되고 陰이 되고, 洪은 氣가 되고 熱이 되니, 主하는 病이 이미 다르고 治法 또한 다른데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니 폐해가 심하다. 또 弦은 緊보다 작고 數은 弦보다 크나, 洪은 그렇지 않아서 손가락을 들거나 눌러도 모두 盛大하니 弦 緊 두 脈과는 같지 않다. 또 緊하면서 遲하면 寒이 되고 緊하면서 數하면 熱이 되는데, 만약 누르면 남고 들면 매우 數하다고 말한다면 곧 또 實脈과 비슷해지니, 만약 緊遲 緊細한 脈은 또 어떻게 살필 것인가.”¹⁸⁾이라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緊脈을 가리켜 “來往有力, 左右彈人手, 既如轉索, 又如切繩, 曰緊.”이라 하여 有力하며 左右로 손가락을 쳐서 마치 새끼줄을 돌리는듯 하거나 새끼줄을 자른 단면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는 “數如切繩狀”이라고 한 『脈經』의 정의에서 數脈과 혼동의 소지가 있는 ‘數’을 빼고, 좌우로 불규칙하게 손가락을 치는 緊脈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9. 沈

| 書名 | 脈象 |
|------|---------------------------------------|
| 脈經 | 沈脈, 舉之不足, 按之有餘. (一曰 重按之乃得.) |
| 脈訣 | 沈者, 陰也.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 緩度三關, 狀如爛綿, 曰沈. |
| 脈訣刊誤 | 沈者, 陰也. 舉之不足, 按之有餘, 重按乃得, 在肌肉之下, 曰沈. |

『脈經』에서는 沈脈을 “舉之不足, 按之有餘.”라고 하여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잘 느껴지지 않고 깊게 누르면 느껴지는 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 緩度三關, 狀如爛綿, 曰沈.”이라 하여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잘

18)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 “今脈訣曰 狀若洪弦은 此誤也니라 緊爲寒爲痛이오 弦爲寒爲飲이오 洪爲氣爲熱이니 主疾既殊하고 治之亦異한대 一概言之爲害甚矣니라 且弦은 小於緊하고 數은 大於弦하나 洪則不然하야 舉按盛大하니 非與二脈同也니라 又緊而遲爲寒이오 緊而數爲熱인대 若曰 按有餘 舉甚數이라하면 則又類實脈이니 若緊遲 緊細는 又何以診이리오.”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寸關尺에서 모두 완만하여 마치 부드러운 솜을 만지는 듯하다고 하여, 맥관의 위치가 깊으면서 형상은 寸關尺에서 모두 완만하여야 沈脈이라고 하였다.

『脈經』에서는 맥관의 깊이만으로 沈脈을 정의한 것과 다르게 『脈訣』에서는 沈脈의 형상까지 정의하고 있다. 李時珍은 이를 비판하여 “沈脈에 緩이나 數을 검할 수도 있고, 寸關尺 各部에 沈脈이 있을 수도 있으며, 爛綿과 같은 것은 弱脈이지 沈脈은 아니다.”¹⁹⁾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舉之不足, 按之有餘, 重按乃得, 在肌肉之下, 曰沈.”이라 하여 『脈經』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重按乃得, 在肌肉之下”라는 구절을 덧붙여서 沈脈은 손가락을 무겁게 눌러야 느껴지며 그 위치는 근육의 아래라고 하였다.

10. 伏

| 書名 | 脈象 |
|------|--|
| 脈經 | 伏脈, 極重指按之, 着骨乃得.(一曰 手下裁動. 一曰 按之不足, 舉之無有. 一曰 關上沈不出, 名曰伏.) |
| 脈訣 | 伏者, 陰也. 指下尋之似有, 呼吸定息全無, 再再尋之, 不離三關, 曰伏. |
| 脈訣刊誤 | 伏者, 陰也. 極重按之, 著骨乃得. 又曰, 關上沈不出. 又曰, 脈行筋下, 曰伏. |

『脈經』에서는 伏脈을 “極重指按之, 着骨乃得.”이라 하여 손가락을 매우 깊게 눌러서 뼈에 닿아야 느껴지는 맥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似有, 呼吸定息全無, 再再尋之, 不離三關, 曰伏.”이라 하여 맥박이 느껴지다가도 호흡을 고르게하면 문득 맥박이 없어졌다가 다시 느껴지는 맥이라고 하였고, 맥관의 깊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脈訣』에 “손가락 아래에서 찾으면 있는 듯하다.”는 것은 곧 伏脈이 아니며, “呼吸을 고르게 하면 脈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곧 脈이 끊어진 것이다. “거듭 찾으면 三關을 떠나지 않는다.”에서 三關은 三部

一寸九分の 자리이니 어찌 다른 脈이라고 해서 三關을 떠날 수 있겠는가.”²⁰⁾라고 하였다.

따라서 『脈訣刊誤』에서는 “極重按之, 著骨乃得. 又曰, 關上沈不出. 又曰, 脈行筋下, 曰伏.”라 하여 『脈經』의 정의를 인용하였고, “脈行筋下”라 하여 맥관의 위치가 筋의 아래에서 骨에 이르기까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1. 革·牢

| 書名 | 脈象 |
|------|------------------------------|
| 脈經 | 革脈, 有似沈伏, 實大而長微弦.(千金翼 以革爲牢.) |
| 脈訣 | 牢者, 陰也. 指下尋之則無, 按之則有, 曰牢. |
| 脈訣刊誤 | 牢者, 陰也. 指下似沈似伏, 實大而長微弦, 曰牢. |

革脈은 『脈經』에서는 “有似沈伏, 實大而長微弦.”이라 하여 沈部位에서 느껴지며 맥은 충실하고 넓고 길며 경계가 비교적 또렷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脈訣』과 『脈訣刊誤』에서는 革脈이 없고, 牢脈에서 『脈經』의 革脈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李時珍은 “諸家脈書에서 革脈을 모두 牢脈으로 보았기 때문에 혹 革脈은 있으나 牢脈이 없고, 牢脈은 있으나 革脈이 없어서 革牢가 뒤섞여 分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革은 浮에 屬한 脈이고 牢는 沈에 屬한 脈이며, 革은 虛에 屬하고 牢는 實에 屬하여서 脈의 形狀과 主宰하는 病證이 모두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²¹⁾라고 하여 『脈訣』과 『脈訣刊誤』에 牢脈은 있으나 革脈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후대의 의가들은 浮하면서 맥관의 표면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경계가 뚜렷하나 속은 비어있는 脈象을 革脈이라 하고, 沈하면서 맥관의 표면이 단단하고 경계가 뚜렷한 脈象을 牢脈이라 하여 革脈과 牢脈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脈經』의 革脈은 지금의 牢脈에 해당한다.

20)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 “脈訣曰 指下尋之似有是 則非伏也며 呼吸定息全無는 則脈絕也니라 再再尋之不離三關에 三關은 三部一寸九分之位也니 豈他脈之診乃離舍三關乎아.”

21) 李時珍 著. 朴晳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p.46~47. “諸家脈書에 皆以爲牢脈 故로 或有革無牢하고 有牢無革하야 混淆不辨하야 不知革浮牢沈하고 革虛牢實하야 形證이 皆異也라.”

19) 李時珍 著. 朴晳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15. “沈有緩數及各部之沈하며 爛綿은 乃弱脈이오 非沈也니라.”

『脈訣』에서는 牢脈을 단지 “指下尋之則無，按之則有，曰牢.”라고 하여 손가락을 깊이 눌렀을 때 느껴지는 맥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沈脈과 牢脈을 구별하기 어렵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似沈似伏，實大而長微弦，曰牢.”이라 하여 革脈에 대한 『脈經』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12. 實

| 書名 | 脈象 |
|------|----------------------------|
| 脈經 | 實脈，大而長微強，按之隱指幅福然。(一曰沈浮皆得.) |
| 脈訣 | 實者，陽也。指下尋之不絕，舉之有餘，曰實。 |
| 脈訣刊誤 | 實者，陽也。浮中沈三候皆有力 曰實。 |

『脈經』에서는 實脈을 “大而長微強，按之隱指幅福然.”이라 하여 맥관의 크기가 크고 길며 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不絕，舉之有餘，曰實.”이라 하였는데, 찾으면 끊어지지 않고 손가락을 들면 느껴진다고 하여 맥의 깊이만 말하고 맥의 형상을 말하지 않아서 浮脈의 모습과 구분하기 어렵다. 『脈訣刊誤』에서는 “浮中沈三候皆有力 曰實.”이라 하여 實脈은 浮中沈에서 모두 有力하게 느껴지는 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단지 유력한 맥을 實脈이라고 하면 實脈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특정한 맥상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脈經』에서 정의한 바를 참고하여 맥관이 크고 길면서 충실하고 유력한 맥을 實脈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13. 微

| 書名 | 脈象 |
|------|---|
| 脈經 | 微脈，極細而軟，或欲絕若有若無。(一曰小也。一曰手下快。一曰浮而薄。一曰按之如欲盡.) |
| 脈訣 | 微者，陰也。指下尋之極微，再再尋之，若有若無，曰微。 |
| 脈訣刊誤 | 微者，陰也。尋之，若有若無，欲絕非絕。又曰，按之如欲盡，曰微。 |

『脈經』에서의 微脈은 “極細而軟，或欲絕若有若無.”라 하여 매우 가늘고 부드러우며, 혹은 끊어질듯하여 있는듯 없는듯 하다고 하였다. 또한 『脈訣』에서도 “指下尋之極微，再再尋之，若有若無，曰微.”라 하여 맥이 매우 가늘고 희미하여 거듭해서 찾으면 있는듯 없는듯 하다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尋之，若有若無，欲絕非絕。又曰，按之如欲盡，曰微.”라 하여 맥의 세기가 매우 무력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弱脈을 가리켜서 “按之如絕指下”라 하였으므로, 맥박의 세기가 매우 약하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는 맥을 微脈이라 하고, 微脈보다 더 약해져서 맥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것을 弱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戴同父는 細脈, 微脈, 弱脈, 澁脈, 濡脈을 구분하여 “微脈과 濡脈·弱脈은 서로 비슷하니, 매우 부드러운면서 浮細한 것을 濡라 하고, 매우 부드러운면서 沈細한 것을 弱이라 하고, 매우 가늘고 부드러우면서 浮沈의 구별이 없는 것은 微脈이다. 微脈과 澁脈 細脈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가늘고 또 微脈보다 짧으며 往來가 어려운 것을 澁이라고 하고, 가늘고 약간 크면서 항상 있는 것을 細라고 하고, 가늘고 약간 길면서 있는듯 없는듯한 것을 微라고 하니, 다섯 가지의 비슷한 맥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곧 微脈을 알 수 있다.”²²⁾ 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細脈은 맥관이 가늘기는 하지만 아직 맥관이 비교적 명확하여 항상 드러나는 것이고, 微脈은 細脈보다 더욱 맥관이 가늘어지고 無力해져서 끊어질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맥이고, 弱脈은 微脈보다도 더욱 맥관이 가늘어지고 無力해져서 누르면 끊어지는 맥이다. 濡脈과 澁脈도 맥관의 굵기가 가늘다는 점에 있어서는 細脈과 같지만, 濡脈은 浮細無力한 맥이고, 澁脈은 細하며 浮沈에 관계없이 맥관이 충실하지 못하고 왕래가 걸끄러운 맥을 가리킨다.

22)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2~23. “微與濡弱相類하니 極軟而浮細曰濡이오 極軟而沈細曰弱이오 極細而軟하며 無浮沈之別者는 微脈也 니라 微與澁細何以分이리오 細而又短於微하며 來往蹇滯曰澁이오 細而稍大常有曰細이오 細而稍長似有似無曰微이니 合五脈相類者를 詳分之則微脈可知矣니라.”

14. 澁

| 書名 | 脈象 |
|------|---|
| 脈經 | 澁脈,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一曰 浮而短. 一曰 短而止. 或曰 散也.) |
| 脈訣 | 澁者, 陰也.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 前虛後實, 無復次序, 曰澁. |
| 脈訣刊誤 | 澁者, 陰也.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又曰, 短而止, 曰澁. |

『脈經』에서는 澁脈을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이라 하여 맥관이 가늘면서 맥박수가 적고 왕래가 어려우며 또 흩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왕래가 더욱 어려워지면 심지어 맥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도 한다. 여기에서 맥이 멈추었다 다시 온다는 것은 澁脈의 필수조건이라기보다는 澁脈의 왕래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 前虛後實, 無復次序, 曰澁.”이라 하였으니, “指下尋之似有, 舉之全無,”는 浮部位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沈部位에서 느껴진다는 의미이며, “前虛後實”은寸은 공허하고尺은 충실하다는 의미이며, “無復次序”는 맥박이 불규칙하다는 의미여서 『脈經』에서 말한 澁脈과는 관계가 없고, 굳이 해석하자면 尺脈의 沈部位에 보이는 代脈에 가까운 설명이라고 보여진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脈訣』에는 “누르면 있는 듯하나 들면 전혀 없다.”고 하니 이는 沈澁은 있고 浮澁은 없음이다. 經에는 “一陰一陽은 脈이 浮하며 澁하게 온다.”고 하니 곧 浮한 가운데 또한 澁이 있는 것이다. 어찌 홀로 沈에만 澁이 있겠는가. 대개 浮하며 澁한 것은 營衛가 상한 것이고, 沈하며 澁한 것은 精血이 상한 것이니 表裏의 證이 같지 않으므로 脈이 또한 다른 것이다. 어찌 홀로 裏만 있고 表는 없겠는가. 『難經』에 “前小後大 前大後小”라고 한 것은 前後로써 尺寸을 논한 것이다. 지금 “前虛後實”이라고 하니 澁은 血이 적어서 그 모습이 꺾고 짧고 가늘고 짧으며 또 흩어지는데 어찌 尺이 實할 수 있겠는가. 만약 尺이 實하다면 곧 澁이 아니다. 다시 순서가 없다는 것은 곧 『內經』에서 이른바 造化롭지 못해서 위아래로 방아를 찧는 듯한 脈이니, 이는 脈이 어지러운 것이고, 脈이 어지러우면 곧 죽는다.”²³⁾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細而遲, 往來難且散, 或一止復來. 又曰, 短而止, 曰澁.”이라 하여 『脈經』을 인용하고, 또 “短而止”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15. 細

| 書名 | 脈象 |
|------|-------------------------------------|
| 脈經 | 細脈, 小大於微, 常有, 但細耳. |
| 脈訣 | 細者, 陰也. 指下尋之, 細細如線, 來往極微, 曰細. |
| 脈訣刊誤 | 細者, 陰也. 指下尋之, 細細如線, 小大於微, 常有且細, 曰細. |

『脈經』에서는 細脈을 정의하여 “小大於微, 常有, 但細耳.”라 하였으니, 맥관이 비록 가늘기는 하지만 微脈보다는 약간 굵고 항상 느껴지는 맥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脈訣』에서는 “指下尋之, 細細如線, 來往極微, 曰細.”라 하였는데, “來往極微”라는 표현은 細脈이 微脈보다 가는 맥이라는 의미가 되어 『脈經』과는 반대가 된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지금 『脈訣』이 말하는 細脈은 이에 往來가 극히 微하다고 말할 즉 微하면서 더욱 微한 脈이니 細脈이 아니다.”²⁴⁾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尋之, 細細如線, 小大於微, 常有且細, 曰細.”라 하여 『脈經』을 따르면서 『脈訣』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다.

23)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 “脈訣曰 按之似有하나 舉之全無라하니 是有沈澁無浮澁이니라 經曰 一陰一陽 謂脈來浮而澁也라하니 則是浮中亦有澁이니라 豈獨沈有澁乎아 蓋浮而澁者는 營衛傷이오 沈而澁者는 精血損이니 表裏之證不同하니 故로 脈亦異하니라 豈獨有裏而無表乎아 難經曰 前小後大 前大後小는 其前後以尺寸論也니라 今云 前虛後實이라하니 澁爲少血하야 其形蹇滯하고 細短且散한대 安能後實이리오 若後實則非澁矣니라 其曰 無復次序는 卽內經所謂參伍不調하야 上下如參春之脈이니 是脈之亂이오 脈亂則死矣니라.”

24)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今脈訣言細脈은 乃云來往極微則微之又微이니 非細矣니라.”

16. 軟

| 書名 | 脈象 |
|------|---|
| 脈經 | 軟脈, 極軟而浮細. (一曰 按之無有, 舉之有餘. 一曰 細小而軟. 軟, 亦作濡, 曰濡者, 如帛衣在水中, 輕手相得.) |
| 脈訣 | 濡者, 陰也. 指下尋之似有, 按之依前却去, 曰濡. |
| 脈訣刊誤 | 濡者, 陰也. 極軟而浮細, 輕手乃得, 不任尋按, 曰濡. |

『脈經』에서는 軟脈을 가리켜 “極軟而浮細”라 하였으니 浮細하며 부드럽고 無力한 맥으로서 후대의 濡脈에 해당한다. 『脈經』에는 軟脈이 있고 濡脈이 없는 점으로 보아, 軟脈과 濡脈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脈訣』에서는 濡脈을 말하였는데, 이를 가리켜서 “指下尋之似有, 按之依前却去, 曰濡.”라 하였으니 “指下尋之似有”는 맥을 가볍게 눌러서는 느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깊이 눌러야 비로소 느껴진다는 뜻이고, “按之依前却去”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누르면 전과 같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인데 어떤 형상을 묘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脈訣』에 “손가락 아래에서 찾으면 있는 듯하다.”라는 말은 伏脈을 말한 것과 같으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또 여러 脈이 응하는 것은 모두 한 번 이르고 한 번 가니, 예컨대 오는 것은 빠르고 가는 것은 느리다고 하거나, 오는 것은 盛하고 가는 것은 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鈎脈을 구별하니 밖은 實하고 안은 虛한 모습이다. 지금 “누르면 전과 같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²⁵⁾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極軟而浮細, 輕手乃得, 不任尋按, 曰濡.”이라 하여 『脈經』에서 軟脈의 정의를 인용하고, 또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야 느낄 수 있고 무겁게 누르면 사라진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濡脈이 浮하며 無力한 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5)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5. “脈訣曰 指下尋之似有是 與言伏脈同하니 何是非耶아 且諸脈之應은 皆一來一去하니 如曰來疾去遲 曰來盛去不盛으로 以別鈎脈하니 外實內虛之診이라 今日 按之依前却去는 其狀果何如耶아.”

17. 弱

| 書名 | 脈象 |
|------|---|
| 脈經 | 弱脈, 極軟而沈細, 按之欲絕指下. (一曰 按之乃得 舉之無有.) |
| 脈訣 | 弱者, 陰也. 指下尋之, 如爛綿相似, 輕手乃得, 重手乃無, 怏怏 ²⁶⁾ 不能前, 曰弱. |
| 脈訣刊誤 | 弱者, 陰也. 指下尋之, 如爛綿相似, 極軟而沈細, 按之如絕指下, 曰弱. |

『脈經』에서는 弱脈을 정의하여 “極軟而沈細, 按之欲絕指下.”라고 하여 매우 부드럽고 沈細하면서 누르면 끊어질것 같은 매우 無力한 맥을 가리킨다. 하지만 『脈訣』에서는 “指下尋之, 如爛綿相似, 輕手乃得, 重手乃無, 怏怏不能前, 曰弱.”이라 하였으니, 부드럽고 무력한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輕手乃得, 重手乃無”이라 하여 浮部位에서 느껴지는 맥으로 정의한 점은 『脈經』과 상반된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脈經』은 弱脈을 논하여 “누르면 얻어지나 들면 없다.”라고 하나, 지금 『脈訣』은 “가볍게 누르면 얻어지나 무겁게 누르면 없다.”고 하니 『脈經』과 서로 상반되므로 지금 이를 고친다.”²⁷⁾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尋之, 如爛綿相似, 極軟而沈細, 按之如絕指下, 曰弱.”이라 하여 『脈訣』에서 “指下尋之, 如爛綿相似.”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脈經』에서 “極軟而沈細, 按之如絕指下”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弱脈을 정의하였다.

18. 虛

| 書名 | 脈象 |
|------|---------------------------------|
| 脈經 | 虛脈, 遲大而軟, 按之不足, 隱指豁豁然空. |
| 脈訣 | 虛者, 陰也. 指下尋之不足, 舉之亦然, 曰虛. |
| 脈訣刊誤 | 虛者, 陰也. 遲大而軟, 按之無力, 隱指豁豁然空, 曰虛. |

2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院. 2001. p.2764. “怏怏: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 즐겁지 않은 모양. 재미가 없는 모양.”

27)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 “脈經論弱云 按之乃得이나 舉之無有라하나 今脈訣云 輕手乃得이나 重手乃無라하니 與經相反하야 今改之하니라.”

『脈經』에서는 虛脈을 “虛脈，遲大而軟，按之不足，隱指豁豁然空。”이라 정의하였으니, 맥박수는 적고 맥관의 크기는 크면서 부드럽고 무력하며 공허한 형상을 하고 있는 맥을 가리킨다. 반면에 『脈訣』에서는 단지 “指下尋之不足，舉之亦然，曰虛.”라 하여 맥이無力하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脈象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李時珍은 “『脈訣』에 맥을 누르면 힘이 없고 손가락을 들면 힘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浮脈만을 말한 것이지 虛脈의 脈狀은 아니다.”²⁸⁾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脈訣刊誤』에서는 “遲大而軟，按之無力，隱指豁豁然空，曰虛.”이라 하여 『脈經』의 정의를 인용하며 “按之不足”을 “按之無力”이라 바꾸어 힘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맥관이 크면서 공허하다는 점에 있어서 芤脈과 虛脈은 유사한데, 戴同父는 두 맥의 차이점을 지적하여 “虛脈은 누르면 虛한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診法이 芤脈과 같다. 모두 누르면 浮大하며 軟하나, 눌러서 가운데는 없고 가장자리에는 있는 것이 芤脈이 되고, 遲大하며 軟하고 누르면 손가락에서 숨어서 널찍하게 텅 비어있는 것은 虛脈이 된다.”²⁹⁾라고 하였으니, 芤脈은 虛脈에 비해서 맥관의 경계가 더욱 명확한 맥임을 알 수 있다.

19. 散

| 書名 | 脈象 |
|------|----------------------------|
| 脈經 | 散脈，大而散，散者，氣實血虛，有表無裏。 |
| 脈訣 | 없음. |
| 脈訣刊誤 | 散者，大而散者，是也。氣失血虛，有表無裏，故脈散也。 |

『脈經』에서 散脈은 맥관의 크기가 크면서 흩어져서 맥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맥을 가리킨다. 『脈訣』에는 散脈이 없으며, 『脈訣刊誤』에서는 『脈經』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28) 李時珍 著. 朴昞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學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27. “脈訣言 尋之不足하고 舉之有餘라하나 止言浮脈이오 不見虛狀이라.”

29)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 “虛脈은 因按而知其虛이니 其診法與芤同이라 皆以按而見浮大而軟하나 按之中無旁有爲芤이오 遲大而軟하고 按之隱指하야 豁豁然空爲虛니라.”

20. 緩

| 書名 | 脈象 |
|------|--|
| 脈經 | 緩脈，去來亦遲，小駛於遲。(一曰 浮大而軟 陰浮與陽同等.) |
| 脈訣 | 緩者，陰也。指下尋之，往來遲緩，小於遲脈，曰緩。 |
| 脈訣刊誤 | 緩者，陰也。指下尋之，往來遲緩，去來亦遲，小駛於遲。又曰，陽脈浮大而濡，陰脈浮大而濡，陰脈與陽脈同等，曰緩。 |

『脈經』에서는 緩脈을 정의하여 “去來亦遲，小駛於遲.”라 하여 去來가 또한 느리지만 맥박수는 遲脈보다 약간 많다고 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往來遲緩，小於遲脈，曰緩.”이라 하여 맥의 왕래가 완만하다는 표현은 있으나, 맥박수가 오히려 遲脈보다 적다고 하여 『脈經』과 반대가 된다.

『脈訣刊誤』에서는 緩脈을 정의하여 “指下尋之，往來遲緩，去來亦遲，小駛於遲.”라고 하였으니, 『脈經』에서 “去來亦遲，小駛於遲.”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脈訣』에서 “指下尋之，往來遲緩.”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부드럽고 완만한 형상과 맥박수를 모두 표현하였다. 다만 “又曰，陽脈浮大而濡，陰脈浮大而濡，陰脈與陽脈同等，曰緩.”라는 구절에서 尺寸이 고르게 浮大而濡한 맥은 緩脈의 정의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21. 遲

| 書名 | 脈象 |
|------|--|
| 脈經 | 遲脈，呼吸三至，去來極遲。(一曰 舉之不足 按之盡牢. 一曰 按之盡牢，舉之無有.) |
| 脈訣 | 遲者，陰也。指下尋之，重手乃得隱隱，曰遲。 |
| 脈訣刊誤 | 遲者，陰也。一息三至，去來極遲，曰遲。 |

『脈經』에서는 遲脈을 정의하여 “呼吸三至，去來極遲.”이라 하였으니, 한 호흡에 맥박이 세 번 뛰는 맥을 가리킨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重手乃得隱隱，曰遲.”라 하여 단순히 沈部位에서 맥박이 느껴진다고 하였을 뿐이고, 맥박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지금 『脈訣』은 遲脈에 대해서 무겁게 눌러야 얻어진다고 하니 이는 浮遲한 脈은 없는 것인가. 脈의 이름을 遲라고 지었으니 보통 사람이 한 번 숨을 쉬는데 脈이 네 번 뛰는 것에

비해서 한 번 脈이 적게 뛰기 때문이다. 지금 隱隱이라 말하는 것은 과연 비슷한 바가 무엇인가.”³⁰⁾라고 하였다. 李時珍은 ‘隱隱’이라는 구절의 잘못을 지적하여 “한 번 숨 쉬는데 세 번 박동하여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도 희미하여 분명히 앓다고 하고, 또 脈狀이 艱難하다고 하였다. 이는 瀦脈이니 그 잘못을 알 수 있다.”³¹⁾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一息三至, 去來極遲, 曰遲.”라 하여 『脈經』의 정의를 인용하였다.

22. 結

| 書名 | 脈象 |
|------|---|
| 脈經 | 結脈, 往來緩, 時一止復來. (按之來緩, 時一止者, 名結陽. 初來動止, 更來小數, 不能自還, 舉之則動, 名結陰.) |
| 脈訣 | 結者, 陰也. 指下尋之, 或來或去, 聚而却還, 曰結. |
| 脈訣刊誤 | 結者, 陰也. 指下尋之, 脈來緩, 時一止復來, 無常數. 又曰, 脈來動而中止, 更來小數, 中有還者反動, 曰結. |

『脈經』에서는 왕래가 완만하면서 때때로 한 번씩 멈추었다가 다시 오는 맥을 結脈으로 보고 있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 或來或去, 聚而却還, 曰結.”라 하여 “或來或去”라는 구절은 맥박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의미로 볼 수 있으나, “聚而却還”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여기서 “혹 오고 혹 가서 모였다가 문득 돌아온다.”라고 말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오고 가는 것은 脈의 정상이다. 모였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어떻게 脈이 結함을 보겠는가.”³²⁾라고 하였으니, 그는 『脈訣』의 문장이 맥박이 멈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30)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 “今脈訣於遲脈曰 重手乃得이라하니 是無浮遲之脈乎아 立脈之名曰遲라하니 以其比平人一息四至하야 減去一至故也니라 今日隱隱은 果何所似아.”

31) 李時珍 著. 朴昞 譯. 國譯 瀦湖脈學·四言學要. 서울. 대성 의학사. 1992. p.17.

32)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 “此云 或來或往하고 聚而却還과는 與之稍異하나라 來去者는 脈之常也니라 聚而還은 何以見脈之結이 리오.”

『脈訣刊誤』에서는 結脈을 정의하여 “指下尋之, 脈來緩, 時一止復來, 無常數. 又曰, 脈來動而中止, 更來小數, 中有還者反動, 曰結.”이라 하였으니, 『脈經』의 설을 인용하되 맥박이 멈추는 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추가한 점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맥이 조금 數하더라도 본 점은 促脈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의심된다.

23. 代

| 書名 | 脈象 |
|------|-------------------------------------|
| 脈經 | 代脈, 來數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脈結者生, 代者死. |
| 脈訣 | 代者, 陰也. 指下尋之, 動而復起, 再不能自還, 曰代. |
| 脈訣刊誤 | 代者, 陰也. 指下尋之, 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曰代. |

『脈經』에서는 代脈을 정의하여 “來數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이라 하였으니, 맥박이 촉급하고 박동수가 많으면서 도중에 멈추면 곧바로 다시 뛰지 못하고 한참 뒤에 다시 뛰는 맥이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 動而復起, 再不能自還, 曰代.”라 하여 맥박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동하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곧 代가 아니니, 동하고 멈추는 것이 代가 됨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듭해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구절 아래에 “因하여 다시 동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후에 脈이 끊어져서 오지 않는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指下尋之, 動而中止, 不能自還, 因而復動, 曰代.”이라 하여 『脈經』을 인용하여 맥박이 멈춘다는 뜻을 따랐지만, 맥박이 數하게 온다는 구절은 삭제하여 맥박수가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맥박이 오래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점을 代脈의 특징으로 보았다.

33)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 “代與止異者는 止者는 按之覺於指下而中止하고 代者는 忽還尺中이러가 停久方來則是歇至하며 數動이러가 止而復來하니 因其呼吸陰陽相引乃復動也니라 今日脈訣曰 動而復起則不代矣니 是不明動而中止爲代也니라 再不能自還之下에 却不言因而復動하니 是不能自還之後에 脈絕不來矣니라.”

24. 動

| 書名 | 脈象 |
|------|--|
| 脈經 | 動脈, 見於關上, 無頭尾, 大如豆, 厥厥然動搖. (傷寒論云 陰陽相搏, 名曰動. 陽動則汗出, 陰動則發熱, 形冷惡寒. 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者, 名曰動.) |
| 脈訣 | 動者, 陰也. 指下尋之似有, 舉之還無, 再再尋之, 不離其處, 不往不來, 曰動. |
| 脈訣刊誤 | 動者, 陰也. 指下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 曰動. |

『脈經』에서는 動脈을 정의하여 “動脈, 見於關上, 無頭尾, 大如豆, 厥厥然動搖.”라 하였으니, 이는 關에서만 맥박이 느껴지고 寸尺에서는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서, 단지 關部位에서만 콩알처럼 돌돌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脈訣』에서는 “指下尋之似有, 舉之還無, 再再尋之, 不離其處, 不往不來, 曰動.”이라 하였으니, “指下尋之似有, 舉之還無”라 하면 맥이 浮部位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손가락을 누르면 느껴진다는 말이고, “再再尋之, 不離其處, 不往不來”라 하면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戴同父는 이를 비판하여 “動脈은 돌돌거리며 흔들려서 여러 맥과 다르니, 어찌 손가락을 들면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 과연 어떤 자리인가. 動은 關에서 보여서 여러 脈이 三部를 통틀어 보이는 것과 같을 수 없다. 『內經』에는 “脈이 往來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往來하지 않는다면 脈이 고정되어서 죽게 된다.”³⁴⁾라고 하였다.

『脈訣刊誤』에서는 動脈을 정의하며 “指下若數脈見於關上, 上下無頭尾, 如豆大, 厥厥動搖, 曰動.”이라 하여 『脈經』에 있는 『傷寒論』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戴同父는 “仲景은 “動脈은 마치 數脈이 關에서 보이는 듯 하고, 위아래로 머리와 꼬리가 없어서

마치 콩알 같고 돌돌 흔들린다.”고 하였다. 王氏의 『脈經』은 仲景의 문장에 의거하되, “若數脈”과 “上下”라는 다섯 글자를 빼고, 단지 “關에서 보이고 머리와 꼬리가 없어서 마치 콩알 같고 돌돌 흔들린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무릇 動脈은 반드시 數脈으로 인한 후에 보이니, 이 다섯 글자는 뺄 수 없다.”³⁵⁾라고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動脈이 數脈을 겸한다고 보았고, 『脈經』에서는 動脈이 맥박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는데, 戴同父는 『傷寒論』을 따르고 있다.

25. 長

| 書名 | 脈象 |
|------|---|
| 脈經 | 없음. |
| 脈訣 | 長者, 陽也. 指下尋之, 三關如持竿之狀, 舉之有餘, 曰長. 過於本位, 亦曰長. |
| 脈訣刊誤 | 長者, 陽也. 指下尋之, 三部如持竿之狀, 舉之有餘, 曰長. 過於本位, 亦曰長. |

『脈經』에서는 長脈이라는 脈象이 없으며, 『脈訣』에서는 寸關尺에 걸쳐서 마치 막대같이 곧으며 손가락을 들어도 느껴지고, 寸關尺의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맥박이 느껴지는 맥으로 정의하고 있다. 『脈訣刊誤』에서는 『脈訣』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三關³⁶⁾이라는 용어를 三部³⁷⁾라고 교정하였다.

34)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動脈厥厥動搖하여 出於衆脈하니 豈舉之還無乎아 不離其處라하니 果何處也오 動見於關하야 不能如衆脈通三部而見이라 內經曰 脈不往來者死라하니 若不往不來則脈定而死矣니라.”

35)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0. “仲景云 動脈若數脈見於關上하고 上下無頭尾如豆大하고 厥厥動搖라하니라 王氏脈經依仲景文而去若數脈及上下五字하고 止云 見於關上하고 無頭尾如豆大하고 厥厥動搖라하니라 夫動必因數而後見하니 此五字不可除也니라.”

36)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137. “小兒診脈法. 또는 指三關이라고도 함. 三關은 風關, 氣關, 命關.”

37)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138. “診脈의 寸, 關, 尺三部.”

26. 短

| 書名 | 脈象 |
|------|-------------------------|
| 脈經 | 없음. |
| 脈訣 | 短者, 陰也. 指下尋之, 不及本位, 曰短, |
| 脈訣刊誤 | 短者, 陰也. 指下尋之, 不及本位, 曰短, |

『脈經』에는 短脈이라는 脈象이 없으며, 『脈訣』에서는 短脈을 본래의 위치에 미치지 못하여 寸關尺 전체에 맥박이 느껴지지 않고 일부에서만 느껴지는 脈象을 가리킨다. 『脈訣刊誤』에서도 『脈訣』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III. 結論

『脈經』에는 浮, 芤,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의 24종류의 맥상이 수록되어 있다. 『脈訣』에도 24종류의 맥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脈經』과는 다르게 數, 散 두 가지의 脈象이 없고 대신 長, 短의 두 가지 脈象이 있다. 『脈訣刊誤』에서는 『脈訣』에 빠진 數, 散의 두 가지 脈象을 보충하여 26가지의 맥상을 수록하였다. 『脈訣』에 遲脈이 있으면서도 數脈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잘못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된 脈象은 26종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서적에 나타난 脈象을 비교해 본 결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로 『脈經』과 『脈訣』과 『脈訣刊誤』에 수록된 脈象이 대체로 유사한 경우이다. 洪脈, 微脈의 2종류 脈象에서 볼 수 있었다.

둘째로 『脈經』과 『脈訣』의 脈象이 다르고, 『脈訣刊誤』에서는 『脈經』을 따라서 바로잡은 경우이다. 浮脈, 芤脈, 滑脈, 數脈, 弦脈, 緊脈, 沈脈, 伏脈, 澁脈, 細脈, 弱脈, 虛脈, 散脈, 緩脈, 遲脈, 結脈, 代脈, 動脈의 18종류 脈象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脈訣刊誤』에서 『脈經』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기 보다는, 여기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로 『脈經』과 『脈經』이후의 脈象의 명칭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이는 革脈과 牢脈, 軟脈과 濡脈의

2종류의 脈象이 있다. 두 가지 脈象 모두 『脈經』과 『脈訣』의 내용이 달랐고, 『脈訣刊誤』에서는 『脈經』을 따라서 脈象을 바로잡았다.

넷째로 『脈經』에는 脈象이 없고 『脈訣』에는 脈象이 있어서 『脈訣刊誤』에서도 『脈訣』을 인용한 경우는 長脈, 短脈의 2종류가 있었다.

이 외에 促脈은 『脈訣刊誤』에서 『脈經』과 『脈訣』의 서로 다른 脈象을 둘 다 인용하고 특별히 절충하지 않았다. 實脈은 『脈經』과 『脈訣』과 『脈訣刊誤』의 脈象이 모두 달랐다.

따라서 『脈經』과 『脈訣』의 脈象이 서로 유사하게 표현된 경우는 단지 2종류에 불과하였고, 『脈經』과 『脈訣』의 脈象이 서로 다른 경우는 24종류에 달하였다. 이로 보아 『脈訣』은 단지 僞作이거나 문체가 비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脈象에 대한 정의가 『脈經』에서의 정의와 다르다는 학문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판받고 학계에서 사장된 것으로 보인다.

IV. 參考文獻

1. 홍원식, 윤창열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일증사. 2001. pp.200~201.
2.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박현국, 김기옥, 이병옥 역. 중국과학기술사. 서울. 일증사. 2003. pp.590~591.
3. 高文鑄 主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506.
4. 高爾鑫 主編. 汪石山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9~31.
5. 李時珍 著. 朴旻 譯. 國譯 瀕湖脈學·四言舉要. 서울. 대성의학사. 1992. p.5, 12, 15, 17, 19, 27, 33, pp.46~47, p.59, 209.
6.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137, 138, 195, 206.
7.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院. 2001. p.2764.